

佛蘭西 唯物論者『돌박』의 人物과 思想(二)

봉생

『이 迷夢을 打倒하라!』라는 『슬로-간』을 들고 나온 쾰르조아지-는 神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基督教 教會와 모든 宗教의 破壞를 指目하고 잇든 쾰르조아지-는 其後 『카토릭』正敎의 泥池로 歸하였다. 神學에 哲學을 對立시키고 잇든 쾰르조아지-는 自己의 哲學을 神學의 옛던 形姿로 變更하였스며 唯物論 哲學의 旗下에서 封建主義와 鬭爭한 不信的 無神論의 쾰르조아지-는 이 旗가 푸로레타리아트에게 占領된 새에 이 哲學을 人類의 『恥辱』이라고 宣言하였다. 自己階級の 盲目的 運動과 慾望과에 唯物哲學의 血과 肉을 입힌 善良한 悟性 그 힘에 依하여 階級的 仇敵에 對하여 勝利를 確保한 不朽의 武器를 鍊磨한 善良과 悟性-何如한 것이든지 自己의 □□에 全歐洲를 傾聽케한 此 思想的 前述는 忘却과 咀呪를 當하고 잇는 것이다. 쾰르조아지-는 푸로레타리아-트와의 鬭爭에 잇서서 自己의 過去를 忘却하고 積極的 科學의 모든 巨大한 成功을 輕視하며 中世紀的 世界觀으로 몰아가지 아니치 못하였나니 如斯한 條件 下에 잇서서는 푸로레타리아-만이 此 聽歎할 『哲學의 世紀』가 남긴 思想的 當의 唯一한 合法的 繼承者이다.

『돌박』은 自己의 思想을 宣傳함에 依하여 革命을 準備하고 쏘는 『革命의 世界觀』을 創造한 十八世紀의 思想家에 屬한다.

二.

『돌박』은 一七二三, 十二月에 『바바리아』의 『하이 데하임』에서 出生하였으며 그의 父는 그에게 莫大한 遺産을 남겼다. 『돌박』은 巴里로 移轉하여 佛蘭西 婦人과 結婚하고 一生을 第二故鄉인 佛蘭西에서 보냈다. 그는 客室을 開하였는데 이것이 唯物論的 思想의 中心이 되었다. 가 客室에서는 每週日 曜日과 木曜에 『엘베슈스』·『데이도로』, 『로소-』·『구리-口』·『다람베르』, 『네-손』 其 他가 會集하여 恒常 政治哲學 及 文學을 主題로 會談하였다.

當時에 客室은 組織된 政黨이 업섯기 새문에 이것을 組織的 中心으로 그

周圍에 同一한 見解와 傾向을 가진 사람들이 集合하였섯든 만큼 重大한 意義를 가졌섯다. 비록 狹義의 純粹한 政治的活動을 안한다는 相違는 잇섯지만 이러한 것이 불란서혁명에서 出發되어 □□ 中에 넌이 背及된 特殊한 諸勞作 中에 教會 王國 貴族社會 其 他에 對한 勇敢한 攻擊에 局限되어잇든 文學的 活動 『政治的』特惠까지도 獲得하여 見解의 形成과 모든 反對派的 氣分을 가진 分子의 綜合을 遂行한 것은 勿論이다.

『돌박』은 『哲學的 黨』의 首領이였다. 그는 多方面으로 教養이 잇는 人物이엇슴으로 同僚들을 그 該博한 知論으로 協助하였다. 그는 『百科全書』를 爲하여 自然科學과 政治의 諸 問題에 關한 論說 等を 寄稿하엿스며 英語와 佛語로부터 多數한 勞作을 鍊磨하여 佛蘭西의 科學文獻을 豊富히 하기에 盡力한 바가 만헛다. 哲學宗教 及 道德問題에 關하여 『돌박』의 文學的 進出은 分明히 一七六七年, 卽 그가 四十四歲 時에 비릇하였다. 『돌박』은 謙虛溫厚한 人物이여서 當時 佛蘭西 貴族一般의 墮落과 逸脫 中에서 道德 上으로는 非難을 맞지 안헛다. 그는 繼承한 巨富를 淫逸墮落의 生活에 消費치 안코 專혀 知的要求를 滿足키에 使用하였다. 그는 博愛心이 이섯다. 그래서 特히 自己의 友人과 同 思想家들을 救助함이 多大하였다. 『돌박』은 決코 第一位를 占하든가 主役을 源할야고 하지는 안헛고 다만 그는 늘 溫厚하고 愼重하며 沈着하여 모든 것에 興味를 가지고 쏘는 모든 것에 反應하는 接客잘하는 家主의 役을 바랏슬 쏘이다. 『돌박』의 客室에서는 모든 文學的 新事가 論議되였다. 그곳에는 절믄 天才가 推薦되며 承認을 맞고 쏘는 感激을 느긔다가 그곳에서 悟性 中에 變革을 作한 모든 革命的作品이 나갓다. 『돌박』의 客室은 舊 佛蘭西 第三階級の 思想職에 잇서서 眞正한 參謀本部이였다.